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무용론이 부상(浮上)한 이유는?

조현준

석사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hyjun2009@naver.com

러시아의 부러진 화살, '대전차군단'

전통적으로 강력한 위용을 발휘했던 러시아 전차군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개량된 T-80BV, T-72B3, 구형 T-90A 등 주력 전차를 투입했음에도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지 못했고, 오히려 큰 피해만 본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현재까지 적게는 약 400대 이상, 많게는 약 1,000대 이상의 전차가 파괴된 것으로 추산된다. 예상외로 심각한 피해를 본 러시아 전차군단은 '세계 군사력 2위'라는 국제적 명성에 먹칠을 했고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던 '전차 무용론' 논쟁을 재 점화시켰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대전차 군단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인1. 러시아 군의 미숙한 작전 운용 능력 - 대대전술단의 실패

러시아군은 대대전술단(BTG; Battalion Tactical Group) 편제를 중심으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침공 당시 러시아군의 1개 BTG 편제는 전차 중대(전차 10대), 3개 기계화보병 중대(장갑차 약 40대)를 전투부대로, 대(對)전차 중대 2~3개, 포병 중대 2개, 방공 중대, 소규모 정보·공병·통신·의무부대를 전투지원부대로 두었다. 하지만 BTG는 병력 편제가 적은 만큼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신속하게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장점인데 3월부터 땅이 진흙으로 변하는 소위 '라스푸티차'(Rasputica)로 인해 러시아군은 BTG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유는 또 있다. 기동성이 강한 반면 소모전과 제병협동(諸兵協同)에 약한 BTG는 게

릴라전을 펼친 우크라이나군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설상가상 보급 작전도 실패했다. 이렇게 기동성이 저하된 시점에 우크라이나군은 적 부대와 가까이 접근하여 근거리에서 대(對)전차 미사일(재블린·NLAW)로 공격했다. 특히 재블린은 탑 어택(Top Attack) 방식을 이용해 전차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상부를 공격했고 러시아 전차부대의 폭발반응장갑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구소련 전차 특유의 낮고 좁은 차체로 인해 내부 유폭이 일어나 러시아 전차들은 무력화되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재블린을 발사하기 위해 근거리까지 접근하였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은 이유는 전차부대가 기동하면서 충분한 정찰·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1) 재블린 미사일 발사 장면

요인2. 미래전의 주인공 ‘드론’ 활약

러시아의 전차군단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제공한 재블린은 뛰어난 무기지만 기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 운용 숙달에 시간이 든다. 또 기능 고장이 일어났을 때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어 급박한 전장에서는 사용상의 제약이 따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드론’ 무기를 적극 활용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드론 공격은 운용법 미숙과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는 대(對)전차

미사일을 대신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였다. 전쟁 전 러시아군의 강력한 야전 방공망체계와 전자전 능력에 무력화될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규모 연료 수송 열차를 타격하거나 수송대 및 기계화 부대를 폭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러시아군의 보급을 끊고 진격을 둔화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회전날개를 부착해 정확도를 높이는 가운데 수류탄을 드론에 싣고 폭격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전차부대에 큰 피해를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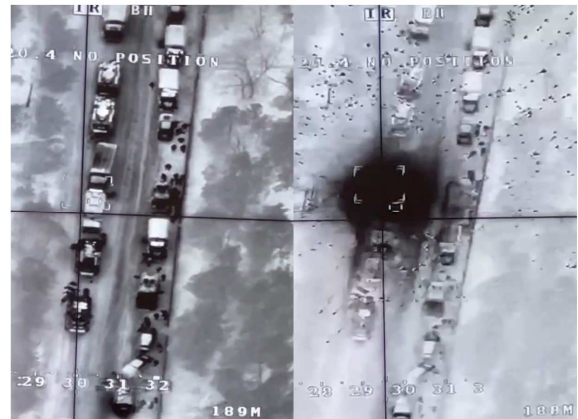


그림 2) 터키제 드론 바이락트 TB2 공격 장면

요인3. 서구의 ‘전자·정보전’ 지원

군의 원활한 작전체계와 효율적인 작전운용을 위해서는 적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휘통제정찰(C4ISR)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우크라이나군이 근거리에서 러시아 전차를 타격하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회피하여 작전을 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자정보전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4ISR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던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적재적소에 무기를 활용하고 작전을 개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미국과 나토의 ‘전자정보전’의 우위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을 우려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는데 ISR(정보·감시·정찰) 작전 지원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서구가 운용하는 MQ-9 ‘리퍼’ 드론, 보잉

RC-135 ‘리벳 조인트’ 공군 정찰기, 보잉 E-3 센트리 ‘AWACS’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이 활용되었다. 미국의 이런 정보자산들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분석해 나토는 실시간으로 러시아 전차 이동 경로와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정보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접근하여 대(對)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고, 드론에 폭탄을 실어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다.

러시아 전차군단의 미래

“전차(戰車)는 지상전의 왕자(王者)다.”라는 말처럼 화력·기동·방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무기다. 빠르게 기동하면서 강한 포를 쏘고 동시에 진지를 형성할 수 있는 무기는 전차뿐인 것이다. 현재까지 전차의 임무를 대신할 무기는 없다. 그래서 전차는 앞으로도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에 다시 전차 무용론이 제기된 이유는 사실 전차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러시아군의 전차 운용 실패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 러시아군은 초기 작전 운용의 실패를 경험하고 전술 형태를 바꾸었다. 부대 재편성 이후 포병 화력을 선제적으로 집중한 이후 병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전통적인 러시아의 작전 양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군은 루한스크주의 95%, 도네츠크주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전술 변화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제 참호화되어 있는 돈바스 지역을 뚫어낸다면 평야 지대가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지형에서 러시아 전차군단은 전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재부상했던 전차 무용론을 다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인 ■ 홍완석 편집인 ■ 김상경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 02-2173-2556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후원 ■  **KIEP** 대한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